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例

參考書目

目次

魯昭公 七 … 9

二十七年(丙戌 B.C.515) … 9	三十年 (己丑 B.C.512) … 63
二十八年(丁亥 B.C.514) … 27	三十一年(庚寅 B.C.511) … 72
二十九年(戊子 B.C.513) … 46	三十二年(辛卯 B.C.510) … 84

魯定公 上 … 97

元年(壬辰 B.C.509) … 99	五年(丙申 B.C.505) … 152
二年(癸巳 B.C.508) … 111	六年(丁酉 B.C.504) … 162
三年(甲午 B.C.507) … 114	七年(戊戌 B.C.503) … 172
四年(乙未 B.C.506) … 119	

魯定公 下 … 178

八年(己亥 B.C.502) … 178	十二年(癸卯 B.C.498) … 227
九年(庚子 B.C.501) … 197	十三年(甲辰 B.C.497) … 231
十年(辛丑 B.C.500) … 210	十四年(乙巳 B.C.496) … 242
十一年(壬寅 B.C.499) … 226	十五年(丙午 B.C.495) … 252

魯哀公 上 … 259

元年(丁未 B.C.494) … 262	八年 (甲寅 B.C.487) … 334
二年(戊申 B.C.493) … 274	九年 (乙卯 B.C.486) … 346
三年(己酉 B.C.492) … 288	十年 (丙辰 B.C.485) … 351
四年(庚戌 B.C.491) … 296	十一年(丁巳 B.C.484) … 356
五年(辛亥 B.C.490) … 303	十二年(戊午 B.C.483) … 378
六年(壬子 B.C.489) … 308	十三年(己未 B.C.482) … 386
七年(癸丑 B.C.488) … 322	

春秋左氏傳 제26권

魯昭公 七

<二十七年, 丙戌 B.C.515>

【經】二十有七年春에 公如齊¹⁾ 하다 公至自齊하야 居于鄆하다

27년 봄에 昭公이 齊나라에 갔다. 昭公이 齊나라에서 돌아와 鄆에 居住하였다.

1) 自鄆行

鄆에서 간 것이다.

【經】夏四月에 吳弑其君僚¹⁾ 하다

여름 4월에 吳나라가 그 임금 僚를 弑해하였다.

1) 僚亟戰民罷 又伐楚喪 故光乘間而動 稱國以弑 罪在僚

僚가 자주 戰爭을 일으켜 백성이 疲敗한데도 또 楚나라에 國喪이 난 기회를 이용해 楚나라를 쳤다. 그러므로 光(闔廬)이 <僚의 親衛軍이 出征한> 기회를 틈타 <평소의 뜻을> 행동으로 옮겨 <僚를 弑害하였다.> 國人이 弑害한 것으로 稱한 것은 罪가僚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經】楚殺其大夫郤宛¹⁾ 하다

楚나라가 그 大夫 郤宛을 죽였다.

1) 無極 楚之讒人 宛所明知 而信近之 以取敗亡 故書名罪宛

費無極이 楚나라의 讒人이라는 것을 郤宛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믿고 가까이하여 敗亡을 自招하였다. 그러므로 이름을 기록하여 郤宛에게 罪를 돌린 것이다.

【經】 秋에 晉 士鞅 宋 樂祁犁 衛 北宮喜 曹人 邾人 滕人 會于扈¹⁾

가을에 晉나라 士鞅이 宋나라 樂祁犁, 衛나라 北宮喜, 曹人, 邾人, 滕人과 扈에서 會合하였다.

1) [附注] 林曰 外大夫自爲會

[부주] 林: 外國의 大夫들이 스스로 會合한 것이다.

【經】 冬十月에 曹伯午卒¹⁾ 하다

겨울 10월에 曹伯 午(悼公)가 卒하였다.

1) 無傳 未同盟而赴以名

傳이 없다. 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記載해 赴告하였기 때문에 <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經】 邾 快來奔¹⁾

邾나라 快가 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1) 無傳 快邾命卿也 故書

傳이 없다. 快는 邾나라 命卿(天子가 任命한 諸侯의 卿)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經】 公如齊¹⁾ 하다 公至自齊하야 居于鄆²⁾ 하다

昭公이 齊나라에 갔다. 昭公이 齊나라에서 돌아와 鄆에 居住하였다.

1) 自鄆行

鄆에서 간 것이다.

2) 無傳

傳이 없다.

【傳】 二十七年春에 公如齊하다 公至自齊하야 處于鄆이라하니 言在外也¹⁾ 라

27년 봄에 昭公이 齊나라에 갔다. 經에 “昭公이 齊나라에서 돌아와 鄆에 居住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魯나라 都城이 아닌> 外地에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1) 在外邑 故書地

外邑에 있었기 때문에 地名을 기록한 것이다.

【傳】吳子欲因楚喪而伐之¹⁾ 使公子掩餘公子燭庸帥師圍潛²⁾ 使延州來季子聘于上國³⁾ 遂聘于晉以觀諸侯⁴⁾ 楚莠尹然工尹麋帥師救潛⁵⁾ 左司馬沈尹戌帥都君子與王馬之屬以濟師⁶⁾ 與吳師遇于窮⁷⁾ 令尹子常以舟師及沙汭而還⁷⁾ 左尹郤宛工尹壽帥師至于潛⁸⁾ 吳師不能退⁹⁾ 矣

吳子が 楚나라에 國喪이 난 기회를 이용해 楚나라를 치려 하여, 公子 掩餘와 公子 燭庸을 시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潛을 포위하게 하고, 延州來 季子를 보내어 上國(中國)을 聘問하게 하니, 季子는 드디어 晉나라로 가서 諸侯의 形勢를 살폈다. 楚나라는 莠尹 然과 工尹 麋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潛을 救援하고, 左司馬 沈尹 戌이 都君子와 王馬官屬을 거느리고 增援하러 가다가 窮에서 吳軍과 만났다. 令尹 子常이 水軍을 이끌고 沙水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左尹 郤宛과 工尹 壽가 군대를 거느리고 潛에 이르니, 吳軍은 <退路가 끊겨> 물러갈 수 없었다.

1) 前年 楚平王卒

前년에 楚平王이 卒하였다.

2) 二子 皆王僚母弟 潛 楚邑 在廬江六縣西南

두 사람은 모두 王僚의 同母弟이다. 潛은 楚나라 邑으로 廬江 六縣 서남쪽에 있다.

3) 季子本封延陵 後復封州來 故曰 延州來 [附注] 林曰 上國 卽中國 吳居東鄉 故以中國爲上國

季子が 본래 延陵에 封해졌고, 뒤에 다시 州來에 봉해졌기 때문에 ‘延州來’라 한 것이다.

[부주] 林: 上國은 바로 中國이다. 吳나라는 동쪽 지방에 있기 때문에 中國을 上國이라 한다.

4) 觀强弱

强弱의 형세를 살핀 것이다.

5) 二尹 楚官 然麋 其名

두尹은 楚나라의 官名이고, 然과 麋은 그들의 이름이다.

6) 都君子 在都邑之士有復除者 王馬之屬 王之養馬官屬 校人也 濟 益也

都君子는 都邑의 사람으로 賦役을 免除받은 자들이고, 王馬之屬은 王의 말을 기르는 官屬으로 校人이다. 濟는 增益이다.

7) 沙水名 [附注] 林曰 子常又以舟師救潛 及沙水之曲而歸

沙는 江의 이름이다.

[부주] 林: 子常이 또 水軍을 거느리고 潛을 救援하기 위해 沙水의 굽이까지 왔다가 돌아간 것이다.

8) 역주] 令尹子常以舟師及沙汭而還 左尹郤宛工尹壽帥師至于潛 : 楚軍과 吳軍이 沙水에서 對峙하고 있기 때문에 令尹이 左尹과 工尹을 곧장 潛으로 보내고 자기는 돌아간 것이다.

《左氏會箋》

9) 楚師彊 故吳不得退去

楚軍이 彊하기 때문에 吳軍이 물러갈 수 없었다.